

3) 기독교계(통일교)

통일교의 공식 명칭은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世界基督教統一神靈協會)이다. 통일교는 평북 정주에서 출생한 문선명에 의해 창립되었다. 교주 문선명은 1920년 농부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소년시절부터 환상을 많이 보았다고 한다. 일찍부터 백남주 후계자들의 주변을 맴돌면서 신비주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냈으며 해방 후에는 김백문의 이스타빌 수도원에 드나들기도 하였다. 문선명은 서울 흑석동 어느 공과학교를 거쳐 일본 와세다 대학(早稻田大學) 전기공학과를 중퇴하였다고 하나 확실한 근거가 없다. 그는 조강지처를 버리고 세 번 결혼하였으며, 자녀는 3남 1녀가 있다. 문선명은 1955년 혼음사건(混淫事件)으로 사회의 빈축과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그의 환상적인 체험에 근거하여 1954년 서울에서 유효원의 도움을 받아 통일교를 창교하였다.

통일교의 기본 교리는 성약(聖約)이라는 원리강론(原理講論)에 있다. 원리강론』은 유효원의 저작으로 전편 7장, 후편 6장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은 창조론, 타락론, 종말론, 재림론, 부활론, 예정론, 기독교론, 복귀론으로 전개된다. 이 내용 가운데 중요시되고 있는 부분은 창조, 타락, 복귀론이다.

교리의 내용을 보면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의 아버지로 믿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구주인 동시에 복귀 전 선의 조상으로 믿으며, 예수가 한국에 재림할 것을 믿으며, 인류 세계는 재림하는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의 대가족 사회로서 통일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최종 목표는 지상과 천상에서 악의 세력과 지옥을 없애고 선과 천국을 세우는 데 있음을 믿는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교리에 불과한 것이다.

그들이 믿는 교리의 내용에는 문선명이 곧 재림주이며, 피가름으로 영체를 받고, 원리는 성약으로 성서보다 더 중요하고, 통일교에서의 결혼은 원죄 없는 자녀를 낳고, 교주 문선명은 죄가 없다는 것에 있다. 이것은 그들의 이중 교리와 밀의를 뜻하는 것이다. 이 같은 그들의 공식 교리나 내면 교리는 신학적인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리강론』에 많은 성구가 인용되고 있으나 사실상 성서 신학적인 면에서 보면 짜맞추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들의 교리가 과학적이라고 자랑하고 있으나 차라리 섹스 모티프로 시종일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들의 신관은 이성성관(二性性觀)의 중화적 존재로 보고 있어 음양설(陰陽說)에 근거한 음양신관이라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예수가 영적 구원은 이루었으나 내적 구원은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통일교가 기독교라고 주장하지만 그러기엔 문제가 있다. 본교의 교리에는 성찬과 세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론이나 신앙의식의 원리가 없다. 또한 복음과 율법의 긴장이 없다. 이들의 교리는 일종의 ‘그노시스’로서 문선명을 재림주로 신격화하는 세뇌도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통일교의 교단 조직은 협회장을 통한 교주의 감독제이다. 목사나 장로의 제도가 없고 교직자는 ‘통일교연수원’에서 양성하고 있다. 포교 기구로는 ‘전도대’, ‘원리연구회’, ‘승공계몽대’, ‘원리공청회’ 등이 있다. 이들의 포교 대상은 주로 기성교회에 불평이 많은 지식층의 젊은 교인들이다. 채용은 ‘통일산업주식회사’를 비롯하여 총포, 제철, 인삼, 페인트 등 수십 개의 업체로부터 충당되고 있으나 자세한 것은 베일 속에 쌓여 있어 확실치 않다. ‘기독교승공연합회’, ‘기독교초교과운동본부’ 등은 통일교의 위성단체들로 알려지고 있다. 기관지로는 ‘주간종교』와 ‘체계일보』가 있다.

통일교의 사회활동을 보면 몇 해 전 777쌍이 합동결혼식을 올려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

다. 얼마 전에는 10만 불의 현상 모집(논문, 소설 등) 광고를 뉴욕타임스에 내기도 하여 세상 사람들을 다시 한 번 놀라게 하였다. 또 그들의 위성단체인 '국제승공연합'을 통해 기성 교회의 목사를 초청하여 '한일목사승공 세미나'를 열어 교계에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들은 정치에 참여하기도 하였는데, 미국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사건' 때에는 닉슨을 용서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미국 언론으로부터 적지 않은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최근의 통일교 포교 전략을 보면 고도로 지능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계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도 하다. 통일교가 순천지역에 언제 누구에 의하여 포교되기 시작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현재 동외동 천변에 통일교회가 세워져 있으며 각 대학 내에 원리연구회 등의 포교 조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